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제1절

체언과 조사

교과서 Ⅱ권 24쪽

제14항 |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

떡이	떡을	떡에	떡도	떡만
손이	손을	손에	손도	손만
팔이	팔을	팔에	팔도	팔만
밤이	밤을	밤에	밤도	밤만
집이	집을	집에	집도	집만
옷이	옷을	옷에	옷도	옷만
콩이	콩을	콩에	콩도	콩만
낮이	낮을	낮에	낮도	낮만
꽃이	꽃을	꽃에	꽃도	꽃만
발이	발을	발에	발도	발만
앞이	앞을	앞에	앞도	앞만
밖이	밖을	밖에	밖도	밖만
넋이	넋을	넋에	넋도	넋만
흙이	흙을	흙에	흙도	흙만
삶이	삶을	삶에	삶도	삶만
여덟이	여덟을	여덟에	여덟도	여덟만
꿇이	꿇을	꿇에	꿇도	꿇만
값이	값을	값에	값도	값만

해설

실질 형태소인 체언의 형태를 고정시키고, 조사도 모든 체언에 공통적으로 결합하는 통일된 형식을 유지시켜 적기로 한 것이다. 예컨대 ‘값(價)’에 조사가 결합한 형태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면,

‘값(價)’ + 조사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다면	갑싸(→ 값이)	갑또(→ 값도)
	갑쓸(→ 값을)	갑만(→ 값만)
↓		
현상	의미 파악이 어려워지고 독서의 능률이 크게 저하됨.	

처럼 되어서, 실질 형태소(체언)의 본 모양이 어떤 것인지, 또 형식 형태소인 조사와의 경계가 어디인지 알아보기가 어렵게 된다. 실질 형태소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표기되면 그 의미 파악이 어려워지고, 독서의 능률이 크게 저하될 것이다.

체언과 조사를 구별하여 적는다는 것은 결국 체언의 끝 받침을 조사의 첫소리 자리로 내리 이어 적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발-이’를 ‘바티’ 혹은 ‘바치’로 적는다고 하면, 체언의 형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주격(主格)을 표시하는 조사의 형태가 불분명해진다. 그리하여 ‘ㅌ’이란 뜻을 표시하는 실질 형태소를 ‘발’으로 고정시키고, 여기에 주격을 표시하는 ‘이’가 결합한 형태는 ‘발이’로 적는 것이 합리적인 방식이다.

실질 형태소 ← 형태 고정	형식 형태소 ← 통일된 형식	효과
젓(乳) 꽃(花) 부엌(廚) 앞(前) 흙(土) 값(價)	은 의 을 에 으로 이다	⇒ 각 형태가 일관성을 이루어, 독서 능력 향상
의미를 인식하기 쉽다.	조사의 기능을 파악하기 쉽다.	

제2절
어간과 어미

교과서 Ⅱ권 24쪽

제15항 |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먹다	먹고	먹어	먹으니
신다	신고	신어	신으니
민다	민고	민어	민으니
울다	울고	울어	(우니)
넘다	넘고	넘어	넘으니
입다	입고	입어	입으니
웃다	웃고	웃어	웃으니
찾다	찾고	찾아	찾으니
좃다	좃고	좃아	좃으니
갈다	갈고	갈아	갈으니
높다	높고	높아	높으니
좋다	좋고	좋아	좋으니
깎다	깎고	깎아	깎으니
앉다	앉고	앉아	앉으니
많다	많고	많아	많으니
늑다	늑고	늑어	늑으니
젼다	젼고	젼어	젼으니
넙다	넙고	넙어	넙으니
흙다	흙고	흙어	흙으니
윙다	윙고	윙어	윙으니
웁다	웁고	웁아	웁으니
없다	없고	없어	없으니
있다	있고	있어	있으니

붙임 1 ▶▶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고,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용언 + 용언	(1) 앞말의 본뜻 이 유지되고 있는 것	원형을 밝히어 적음	넘어지다 돌아가다 떨어지다 접어들다	늘어나다 되짚어가다 벌어지다 틀어지다	늘어지다 들어가다 엮어지다 흠어지다
	(2) 본뜻에서 멀 어진 것	소리 나는 대로 표기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		

단어가 단독으로 쓰일 때 표시되는 어휘적 의미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거나 변화되었음.

붙임 2 ▶▶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O)	ㄴ(X)
이것은 책이오.	이것은 책이요.
이리로 오시오.	이리로 오시요.
이것은 책이 아니오.	이것은 책이 아니요.

붙임 3 ▶▶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요’는 ‘이오’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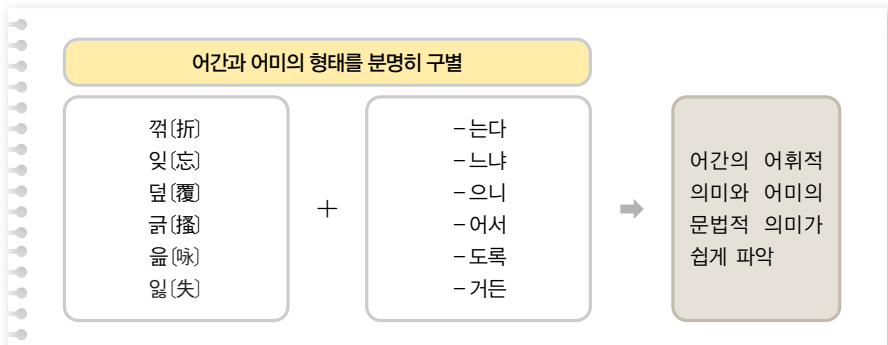
ㄱ(O)	ㄴ(X)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요, 또 저것은 먹이다.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요, 또 저것은 먹이다.

해설

전향과 마찬가지로, 실질 형태소인 어간의 형태를 고정시키고, 형식 형태소인 어미도 모든 어간에 공통적으로 결합하는 통일된 형식을 유지시켜 적기로 한 것이다. 예컨대 어간 형태소 ‘늘-’에 어미가 결합한 형태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면,

'늘(老-)' + 어미	늘꼬(→ 늑고)	늘께(→ 늑게)
	늑찌(→ 늑지)	늑쏘(→ 늑소)
	늑능(→ 늑는)	늑네(→ 늑네)
	늘그니(→ 늑으니)	늘거서(→ 늑어서)

처럼 되어서, 어간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어미와의 경계가 어디인지 알아보기가 어려워진다.



이 경우 역시, ‘늘-고, 늘-지, 늘-는, 늘-으니’ 처럼 어간과 어미의 형태를 분명히 구별함으로써, 어간이 표시하는 어휘적 의미와 어미가 표시하는 문법적 의미가 쉽게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붙임 1 ▶▶ 두 개 용언이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로 된 경우, 앞 단어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어간의 본 모양을 밝히어 적고,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본뜻에서 멀어진 것’이란, 그 단어가 단독으로 쓰일 때 표시되는 어휘적 의미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거나 변화되었음을 말한다. 예시어 중, ‘늘어나다, 되짚어가다, 접어들다, 틀어지다’는 통일안에서 안 다루어졌던 것을 추가하였다.

(1)의

늘어나다-늘다(增)	늘어지다-늘다(延)
돌아가다-돌다(回)	들어가다-들다(入)
떨어지다-(방울) 떨어	벌어지다-(아람이) 벌다
엮어지다-엮다(覆)	틀어지다-틀다(妨)
흩어지다-흩다(散)	

따위는 앞 단어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되짚어가다’ (및 ‘되짚어오다’)는 ‘되짚어’라는 단어(부사)가 사전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다만, ‘넘어지다, 접어들다’의 경우는 그 의미 구조가 좀 모호하긴 하지만, 어원적인 형태를 ‘넘어-지다’, ‘접어-들다’로 해석하는 관례에 따라 여기서 다른 것이다.

한편, ‘돌아가다(歸), 접어들다(移入)’ 따위는 예컨대

산모퉁이를 돌아(서) 간다.	우산을 접어(서) 든다.
-----------------	---------------

같은 형식과는 구별된다.

(2)의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 등은 ‘들다/나다’, ‘살다/지다’, ‘쓸다/지다’ 처럼 분석되지 않는다. 사전에서는 ‘(방울) 쓸다’의 피동형은 ‘쓸리다’로 다루고 있으나, ‘지다’ 결합 형식은 ‘쓸어지다’ (비가 좋으니, 방이 잘 쓸어진다.)로서, ‘쓰러진다(廢)’와 구별된다. (2)의 규정이 적용되는 단어로는

나타나다	바라보다	바라지다(拆)	배라먹다(乞食)
부서지다(碎)	불거지다(凸)	부러지다(折)	자라나다(長)
자빠지다(沛)	토라지다(沙滯)		

등도 있다.

붙임 2, 3 ▶▶ 통일안 부록 I 표준말 5에는, 연결형(連結形)이나 종지형(終止形)이나 마찬가지로 ‘이요’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현행 표기에서는 연결형은 ‘이요’ 종지형은 ‘이오’로 적고 있어서, 관용 형식을 취한 것이다. 연결형의 경우는, 옛말에서 ‘이고’의 ‘-’이 묵음화(默音化)하여 ‘이오’로 굳어진 것이긴 하지만, 다른 단어의 연결형에 ‘오’ 형식이 없으므로(연관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요’로 적는 것이다. 그러나 종지형의 경우는, ‘나도 가요’, ‘집이 크오’처럼 모든 용언 어간에 공통적으로 결합하는 형태가 ‘오’인데, ‘이-’ 뒤에서만 예외적인 형태 ‘요’를 인정하는 것은 체계 있는 처리가 아니므로, ‘오’로 적는 것이다.

제16항 |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ㅏ, ㅑ’ 일 때에는 어미를 ‘-아’로 적고, 그 밖의 모음일 때에는 ‘-어’로 적는다.

1. ‘-아’로 적는 경우

나아	나아도	나아서
막아	막아도	막아서
앉아	앉아도	앉아서
돌아	돌아도	돌아서
보아	보아도	보아서

2. ‘-어’로 적는 경우

개어	개어도	개어서
겪어	겪어도	겪어서
되어	되어도	되어서
베어	베어도	베어서
쉬어	쉬어도	쉬어서
저어	저어도	저어서
주어	주어도	주어서
피어	피어도	피어서
희어	희어도	희어서

해설

어간 끝음절의 모음이 ‘ㅏ, ㅑ’ (양성 모음)일 때는 어미를 ‘아’ 계열로 적고,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ㅛ, ㅜ, ㅣ’ (음성 모음)일 때는 ‘어’ 계열로 적는다. 이것은 전통적인 형식으로서의 모음 조화(母音 調和)의 규칙성에 따른 구별인데, 어미의 모음이 어간의 모음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제약(制約)받는 현상이다.

■ 모음 조화

두 음절 이상의 단어에서, 뒤의 모음이 앞 모음의 영향으로 그와 가깝거나 같은 소리로 되는 언어 현상. ‘ㅏ’, ‘ㅑ’ 따위의 양성 모음(어감이 밝고 산뜻한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ㅓ’, ‘ㅕ’ 따위의 음성 모음(어감이 어둡고 큰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이다.

현실적으로 모음 조화의 파괴로 말미암아 (잡아→)[자버], (앉아→)[알버]처럼 발음되는 경향이 있으나, 그것은 표준 형태로 인정되지 않는다.

어간 끝음절의 모음		어미의 형태
양성 모음	ㅏ, ㅑ	-아(아라, 아서, 아도, 아야)(앗, 았앗)
음성 모음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ㅛ, ㅜ, ㅣ	-어(어라, 어서, 어도, 어야)(엇, 었엇)

제17항 |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 ‘-요’는 ‘-요’로 적는다.

읽어
참으리
좋지

+

‘-요’

→

읽어요
참으리요
좋지요

해설

이 경우의 ‘요’는, 그것만으로 끝날 수 있는 어미 뒤에 결합하여 높임의 뜻을 더하는 성분인데, 어미에 결합하는 조사로 설명되고 있다. 이 ‘요’는 의문형 어미 뒤에도 결합한다.

가리-요

가지-요

가나-요

가는가-요

바로바로 쓱!

1 다음 중, 바른 것을 고르시오.

- ① 컵을 (기울여 / 기우려) 뱉라. ② 아침 일찍 (일어나다 / 이어나다).
- ③ 몸을 (일으키다 / 이르키다). ④ 아래로 (떨어지다 / 떠러지다).
- ⑤ 실체가 (들어나다 / 드러나다). ⑥ 첩퍼덕 (들어눕다 / 드러눕다).
- ⑦ 집으로 (들어가다 / 드러가다). ⑧ 안으로 (들어오다 / 드러오다).

2 다음 중, 바른 표기를 고르시오.

- ① 옷에 땀이 (배어 / 배여) 빨아야겠다.
- ② 그는 학자로서 (나무랄 / 나무렐) 데 없는 사람이다.
- ③ 새로 산 빗자루는 먼지가 잘 (쓸어진다 / 쓰러진다).

3 다음 (ㄱ, ㄴ)으로 표기된 것 중 바른 것을 고르시오.

- ① 빨리 가세(오 / 요).
- ② 날로 새로(와 / 위)라.
- ③ 이쪽으로 가시(오 / 요).
- ④ 종이가 너무 얇(아 / 어)서 안 되겠다.
- ⑤ 구멍을 막(아 / 어) 봤는데 소용이 없다.
- ⑥ 이것은 국어 책이(오 / 요), 저것은 수학 책이(오 / 요).

4 다음 중, 맞는 표기를 고르시오.

- ① 공사 중이니 돌아가 (주십시오 / 주십시오).
- ② 삼 년도 참았거든 단 며칠이야 더 못 (참으리요 / 참으리요).

제18항 |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1. 어간의 끝 ‘ㄹ’이 줄어들지 않음

갈다	가니	간	갑니다	가시다	가오
놀다	노니	논	놀니다	노시다	노오
볼다	부니	분	봅니다	부시다	부오
등글다	등그니	등근	등급니다	등그시다	등그오
어질다	어지니	어진	어집니다	어지시다	어지오

붙임 ▶▶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ㄹ’이 준 대로 적는다.

마지못하다	마지않다
(하)다마다	(하)자마자
(하)지 마라	(하)지 마(아)

2. 어간의 끝 ‘ㅅ’이 줄어들지 않음

긋다	그어	그으니	그었다
낫다	나아	나으니	나았다
잇다	이어	이으니	이었다
짓다	지어	지으니	지었다

3. 어간의 끝 ‘ㅎ’이 줄어들지 않음

그렇다	그러니	그럴	그러면	그러오
까맣다	까마니	까말	까마면	까마오
동그랗다	동그라니	동그랄	동그라면	동그라오
퍼렇다	퍼러니	퍼럴	퍼러면	퍼러오
하얗다	하야니	하얄	하야면	하야오

4. 어간의 끝 ‘ㄴ, ㄹ’이 줄어들지 않음

푸다	퍼	폈다	담그다	담가	담갔다
뜨다	떠	뒀다	고프다	고파	고팠다
꼬다	꺼	꼈다	따르다	따라	따랐다
크다	커	켰다	바쁘다	바빠	바빴다

5. 어간의 끝 ‘ㄷ’이 ‘ㄹ’로 바뀌지 않음

걷다(步)	걸어	걸으니	걸었다
듣다(聽)	들어	들으니	들었다
묻다(問)	물어	물으니	물었다
싣다(載)	실어	실으니	실었다

6. 어간의 끝 ‘ㅂ’이 ‘ㄴ’로 바뀔 적

깎다	기워	기우니	기웠다
굽다(𪎐)	구워	구우니	구웠다
가깝다	가까워	가까우니	가까웠다
괴롭다	괴로워	괴로우니	괴로웠다
맵다	매워	매우니	매웠다
무겁다	무거워	무거우니	무거웠다
밟다	미워	미우니	미웠다
쉽다	쉬워	쉬우니	쉬웠다

다만 ‘돕-, 곱-’과 같은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가 결합되어 ‘와’로 소리 나는 것은 ‘-와’로 적는다.

돕다(助)	도와	도와서	도와도	도왔다
곱다(麗)	고와	고와서	고와도	고왔다

7. ‘하다’의 활용에서 어미 ‘-아’가 ‘-여’로 바뀔 적

하다	하여	하여서	하여도	하여라	하였다
----	----	-----	-----	-----	-----

8. 어간의 끝음절 ‘ㄹ’ 뒤에 오는 어미 ‘-어’가 ‘-러’로 바뀔 적

이르다(至)	이르러	이르렀다	노르다	노르러	노르렀다
누르다	누르러	누르렀다	푸르다	푸르러	푸르렀다

9. 어간의 끝음절 ‘ㄹ’의 ‘ㄹ’이 줄고, 그 뒤에 오는 어미 ‘-아/-어’가 ‘-라/-러’로 바뀔 적

가르다	갈라	갈랐다	부르다	불러	불렀다
거르다	걸러	걸렀다	오르다	올라	올랐다
구르다	굴러	굴렀다	이르다	일러	일렀다
벼르다	벌러	벌렀다	지르다	질러	질렀다

해설

어휘적 형태소인 어간이 문법적 형태소인 어미와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활용의 체계에는

- (1) 어간의 모양은 바뀌지 않고, 어미만이 교체된다(변화한다).
- (2) 어미는 모든 어간에 공통되는 형식으로 결합한다.

라는 원칙이 있다.

‘원칙에 벗어나면’이란, 이 두 가지 조건에 맞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니,

- ① 어미가 예외적인 형태로 결합하는 것
 - ② 어간의 모양이 달라지고, 어미도 예외적인 형태로 결합하는 것
- 등, 두 가지 형식을 들 수 있다.

1. 어간 끝 받침 ‘ㄹ’이 어미의 첫소리 ‘ㄴ, ㄷ, ㅅ’ 및 ‘-(으)오, -(으)ㄹ’ 앞에서 줄어드는 경우, 준 대로 적는다.

살다	(살네) 사네	(살세) 사세	(살으오) 사오	(살을수록) 살수록
빌다	(빌네) 비네 (빌을뿐더러) 빌뿐더러	(빌세) 비세	(빌으오) 비오	(빌읍시다) 빌시다

어간 끝 받침이 ‘ㄹ’인 용언은 모두 이에 해당한다.

붙임 ▶▶ 어간 끝 받침 ‘ㄹ’은 ‘ㄷ, ㅅ, ㅅ’ 앞에서 줄지 않는 게 원칙인데, 관용상 ‘ㄹ’이 줄어진 형태가 굳어져 쓰이는 것은 준 대로 적는다.

(-다 말다) -다마다	(말지 못하다) 마지못하다	(말지 않아) 머지않아
(-자 말자) -자마자	(-지 말아) -지 마(아)	(-지 말아라) -지 마라

‘(-지 말아라 →) -지 마라’의 경우는, 어간 끝 받침 ‘ㄹ’과 어미의 ‘아’가 함께 줄어드는 형태인데, 이른바 문어체(文語體) 명령형이나 간접 인용법의 형식에서는 ‘말라’가 사용된다.

■ ‘(-지 말아라 →) -지 마라’ → 말라

문어체 명령형	(가지 말아라) 가지 말라.
간접 인용법	읽지 말라고 하였다.

한편, ‘-다마다’는 사전에 따라 ‘-고말고’의 방언으로 다루어지기도 하였으나, 표준어로 인정한 것이다. (표준어 규정 제 26항 참조.)

2. 어간 끝 받침 ‘ㅅ’이 어미의 모음 앞에서 줄어드는 경우, 준 대로 적는다. 어간 끝에 ‘ㅅ’ 받침을 가진 용언 중, ‘긋다, 낫다, 붓다, 잇다, 잣다, 짓다, 짓다’ 등이 이에 해당되고, ‘벗다, 빚다, 빼앗다, 솟다, 찢다, 옷다’ 등은 ‘ㅅ’ 받침이 줄어들지 않는다.

붓다	(붓으니) 부으니	(붓어도) 부어도	(붓었다) 부었다
----	-----------	-----------	-----------

‘긋다’가 상당히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긋다’의 방언으로 다루어진다. 어원적으로 ‘긋다’에서 파생된 부사 ‘주섬주섬’은 ‘주엄주엄’으로 적지 않는다.

3. 형용사의 어간 끝 받침 ‘ㅎ’이 어미 ‘-네’나 모음 앞에서 줄어드는 경우, 준 대로 적는다. 다만, 어미 ‘-아/ -어’와 결합할 때는 ‘-애/ -에’로 나타난다.

노랗다	(노랑네) 노라네 (노랄아) 노래	(노랑은) 노란 (노랄아지다) 노래지다	(노랑으니) 노라니
허열다	(허열네) 허여네 (허열어) 허예	(허열을) 허열 (허열어지다) 허예지다	(허열으면) 허여면

어간 끝에 ‘ㅎ’ 받침을 가진 형용사 중, ‘좋다’ 이외의 단어는 모두 이에 해당된다.

4. 어간이 모음 ‘ㄴ’로 끝나는 동사 ‘푸다’와, 어간이 모음 ‘ㄴ’로 끝나는 용언 중 8, 9에 해당하는 단어 이외의 단어들은, 뒤에 어미 ‘-어’가 결합하면 ‘ㄴ, ㄴ’가 줄어진다.

푸다	(푸어) 퍼	(푸어서) 퍼서	(푸었다) 폼다
바쁘다	(바쁘어) 바빠	(바쁘어도) 바빠도	(바쁘었다) 바빴다

‘ㄴ’가 줄어지는 단어는 ‘푸다’ 하나뿐이며, ‘ㄴ’가 줄어지는 단어로는 ‘끄다, 담그다, 따르다, 뜨다, 잠그다, 치르다, 트다, 가쁘다, 고프다, 기쁘다, 나쁘다, 미쁘다, 바쁘다, 슬프다, 아프다, 예쁘다, 크다’ 등이 있다.

5. 어간 끝 받침 ‘ㄷ’이 모음 앞에서 ‘ㄹ’로 바뀌어 나타나는 경우, 바뀐 대로 적는다.

일컫다	(일컫으면) 일컬으면	(일컫어서) 일컬어서	(일컫었다) 일컬었다
-----	-------------	-------------	-------------

어간 끝에 ‘ㄷ’ 받침을 가진 용언 중, ‘걷다(步), 긴다, 깨닫다, 높다, 달다(走), 듣다, 묻다(問), 붙다, 신다, 일컫다’ 등이 이에 해당되고, ‘걷다(收, 撤), 달다(閉), 듣다, 뜯다, 묻다(埋), 민다, 받다, 변다, 뺀다, 얻다, 곧다, 굳다’ 등은 ‘ㄷ’이 ‘ㄹ’로 바뀌지 않는다.

6. 어간 끝 받침 ‘ㅂ’이 모음 앞에서 ‘ㅍ’로 바뀌어 나타나는 경우, 바뀐 대로 적는다.

놓다	(놓으니) 누우니	(놓어) 누워	(놓었다) 누웠다
답다	(답으면) 더우면	(답어) 더워	(답었다) 더웠다

어간 끝에 ‘ㅂ’ 받침을 가진 용언 중, ‘굽다(炙), 갑다, 눅다, 줍다, 가깝다, 가볍다, 간지럽다, 괴롭다, 그럽다, 노엽다, 더럽다, 땀다, 메스껍다, 무겁다, 미덥다, 밉다, 사납다, 서럽다, 쉽다, 아니꼽다, 어둡다, 역겹다, 즐겁다, 지겹다, 차갑다, 춥다’ 등과, 접미사 ‘-답다, -롭다, -스럽다’가 결합하여 된 단어들이 이에 해당되고, ‘(손-)꼭다(屈指), 뽀다, 씹다, 업다, 잡다, 접다, 집다, (손이) 곱다, 곱다(曲), 줍다’ 등은 ‘ㅂ’ 받침이 ‘ㅍ’로 바뀌지 않는다.

다만, 모음 조화의 규칙성에 따라 ‘ㅏ, ㅑ’에 붙은 ‘ㅂ’ 받침 뒤에 어미 ‘-아(았)’가 결합한 형태는

가까와, 가까와서	아름다와, 아름다와야	괴로와도, 괴로왔다
-----------	-------------	------------

처럼 모두 ‘와(왔)’로 적었으나, 이번에는 현실적인 발음 형태를 취하여, 모음이 ‘ㅏ’인 단음절 어간 뒤에 결합하는 ‘-아’의 경우만 ‘와’로 적고, 그 밖의 경우는 모두 ‘워’로 적기로 하였다.

‘와’형	돕다	도와, 도와라, 도와서, 도와도, 도와야, 도왔다
	곱다	고와, 고와서, 고와도, 고와야, 고왔다
‘워’형	괴롭다	괴로워, 괴로워서, 괴로워도, 괴로워야, 괴로웠다
	아름답다	아름다워, 아름다워서, 아름다워도, 아름다워야, 아름다웠다

7. 제16항 규정을 적용한다면, 어간 ‘하-’ 뒤에는 어미 ‘-아’가 결합되어야 한다. 그런데 ‘하-’ 뒤에서는 분명히 [여]로 발음되기 때문에, 예외적인 형태인 ‘여’로 적는 것이다.

‘하- + -아’ → 하여	(하이라) 하여라	(하아도) 하여도
	(하았다) 하였다	

8. 제16항 규정을 적용한다면, ‘이르-, 노르-’ 뒤에는 어미 ‘-어’가 결합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르다[至], 누르다, 푸르다’ 따위의 경우는 분명히 [러]로 발음되기 때문에, 예외적인 형태인 ‘러’로 적는다.

(푸르어) 푸르러	(푸르어서) 푸르러서
(푸르었다) 푸르렀다	(푸르어지다) 푸르러지다

어간 끝음절이 ‘르’인 용언 중, ‘노르다, 누르다, 푸르다’ 등이 이에 해당된다.

9. 어간 끝음절 ‘르’ 뒤에 어미 ‘-어’가 결합할 때, 어간 모음 ‘ㅡ’가 줄면서 ‘ㄹ’이 앞 음절 받침으로 올라붙고, 어미 ‘어’가 ‘라/러’로 나타나는 경우, 바뀐 대로 적는다.

나르다	(나르어) 날라	(나르어서) 날라서	(나르었다) 날랐다
누르다	(누르어) 눌러	(누르어도) 눌러도	(누르었다) 눌렀다

어간 끝음절이 ‘르’인 용언 중, 4나 8에 해당하는 단어 이외의 것들은 다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어간 끝음절 ‘르’ 뒤에 피동사화, 사동사화 접미사 ‘-이’가 결합하는 경우에도 역시 어간 모음 ‘ㅡ’가 줄면서 ‘ㄹ’이 앞 음절의 받침으로 올라붙고, ‘이’가 ‘리’로 바뀌어 나타난다.

(누르이다) 눌리다	(오르이다) 올리다	(흐르이다) 흘리다
------------	------------	------------

이 밖에, 예외적인 형태의 어미가 결합하는 형식으로

가다	(가아라) 가거라	자다	(자아라) 자거라
오다	(오아라) 오너라		

가 더 있으나, 예외 형식이 단지 명령형 한 가지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여기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1 다음 중, 표기가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 ① 얹아도 ② 좁아서 ③ 보아서
- ④ 개아도 ⑤ 돌아도

2 다음 () 안의 표기 중에서 바른 것을 고르시오.

- ① 남해의 거(친, 칠은) 파도
- ② 하늘을 (나, 날으)는 비행기
- ③ (쫘, 찌)은 보리쌀로 죽을 쑨다.
- ④ 할머니 댁에 들(러, 려) 오너라.
- ⑤ 정확하게 값을 치(렸, 뵈)다.
- ⑥ 나에게 제발 그러지 (말아요, 마요).
- ⑦ 만화책을 읽지(마라,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제3절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교과서 Ⅱ권 24쪽

제19항 |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	길이 땀받이 별이	깊이 달맞이 벼룩이	높이 먹이 살림살이	다듬이 미닫이 쇠붙이
2.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걸음 엮음 죽음	묵음 울음 만들	민음 웃음 앓	얼음 줄음
3.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같이 많이	굳이 실없이	길이 좋이	높이 짓궂이
4.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밝히	익히	작히	

다만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떨어진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굽도리	다리(髀)	목거리(목병)	무녀리
코끼리	거름(비료)	고름(膿)	노름(도박)

붙임 ▶▶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1) 명사로 바뀐 것	귀머거리 마감 비렁뱅이	까마귀 마개 쓰레기	너머 마중 올가미	뜨더귀 무덤 주검
(2) 부사로 바뀐 것	거뭇거뭇 바투 자주	너무 불긋불긋 차마	도로 비로소	뜨덤뜨덤 오긋오긋
(3) 조사로 바뀌어 뜻이 달라진 것	나마	부터	조차	

해설

1, 2. 명사화 접미사 ‘-이, -음’은 비교적 널리(여러 어간에) 결합하며, 또 본디 어간 형태소의 뜻이 그대로 유지된다.

어간 + ‘-이’	(굽다) 굽이	(걸다) 귀걸이	(밟다) 귀밟이	(넓다) 넓이	(놀다) 놀음놀이
	(더듬다) 더듬이	(뚫다) 대뚫이	(받다) 물받이	(뿜다) 물뿜이	(얹다) 배얹이
	(놀다) 뺏놀이	(맞다) 손님맞이	(잡다) 손잡이	(막다) 액막이	(닫다) 여닫이
	(걸다) 옷걸이	(박다) 점박이	(살다) 하루살이	(돈다) 해돋이	(씻다) 호미씻이
	(묻다) 휘묻이				
어간 + ‘-음’	(갈다) 갈음(-하다)	(볶다) 고기볶음	(그을다) 그을음	(모질다) 모질음	(살다) 삶
	(설다) 설음	(숙다) 숙음	(수줍다) 수줍음	(값다) 양값음	(엮다) 엮음
	(숫다) 용숫음	(일컫다) 일컫음	(놀다) 탈놀음	(막다) 판막음	

‘겨레불이, 쇠불이, 일가불이, 피불이’의 ‘-불이’를 ‘부치’로 적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 경우 ‘불-’에는 ‘불다, 팔리다’란 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불이’로 적기로 하였다.

3, 4. 부사화 접미사 ‘-이, -히’도 비교적 규칙적으로 널리(여러 어간에) 결합한다.

어간 + ‘-이’	(곧다) 곧이(-들다)	(없다) 덧없이	(웁다) 웁이	(적다) 적이
어간 + ‘-히’	(밝다) 밝히	(익다) 익히	(작다) 작히	

‘밝히’는 그 뒤에 ‘증명하다(되다)’ 같은 말이 연결되긴 하지만, ‘만들다, 비치다, 빛나다’ 같은 말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 제약성을 지니므로, 부사적 기능이 약한 단어이며, ‘작히(작히나)’는 그 어근(어간)의 본뜻과 상당히 떨어진 단어다. 그러나 용언 어간 ‘밝-, 작-’에 부사화 접미사가 결합하여 된 단어이므로, 여기서 다른 것이다.

다만 명사화 접미사 ‘-이, -음’이 결합하여 된 단어라도, 그 어간의 본뜻과 떨어진 원형(原形)을 밝힐 필요가 없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예시어들은 ‘돌(다), 달(다), 걸(다), 열(다), 길(다), 놀(다)’ 같은 어간 형태소의 뜻이 유지되고 있지 않으므로, ‘굽돌이, 달이, 목걸이(딴 단어), 문열이, 코걸이(코깰이), 꿇음, 놀음(딴 단어)’처럼 적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너비	도리깨	두루마리	목도리	빈털터리	턱거리(언턱거리, 종기)
----	-----	------	-----	------	---------------

따위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거름(肥料), 노름(賭博), 어름(物界)’ 등은 ‘걸음(步), 놀음(遊), 얼음(氷)’과 달리 적는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인 것이다.

붙임 ▶▶ 비교적 널리(여러 어간에) 결합하는 ‘-이, -음’과는 달리, 불규칙적으로 결합하는,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1) 명사로 된 것

(꾸짚음) 꾸중	(남어지) 나머지	(논웅지) 누룽지	(늪으막) 늪그막
(돌앙) 도랑	(돌으래) 도르래	(동글아미) 동그라미	(뽕잉이) 뽕경이
(뽀으렁) 빠드렁니	(웁아미) 울가미	(짚앙이) 지팡이	(툼예) 코뚜레

(2) 부사로 된 것

(늘우) 느루	(돌우) 도두	(돌오) 도로	(맞우) 마주
(비돌오) 비뚜로	(밭암) 발밤발밤	(잡암) 자밤자밤	(잡암) 자밤자밤
(죇엄) 주섬주섬			

‘넘어, 너머, 너무’는 아래 예시와 같이 구별되며,

산을 넘어(동사) 날아간다.	산 너머(명사)에 있는 마을	사람이 너무(부사) 많다.
-----------------	-----------------	----------------

‘참아, 차마’는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괴로움을 참아(동사) 왔다.	차마(부사) 때릴 수는 없었다.
-----------------	-------------------

(3) 조사로 된 것

동사 ‘남다, 붙다, 좇다’의 부사형 ‘남아, 붙어, 좇아’가 허사화(虛辭化)한 것인데, 형식 형태소인 조사이므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마저(← 마자← 맞아)’도 이에 해당된다.

제20항 |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부사로 된 것	곳곳이	날날이	몹몹이	살살이	앞앞이	집집이
2. 명사로 된 것	곰배팔이 절뚝발이/절름발이	바둑이	삼발이	애꾸눈이	육손이	

붙임 ▶▶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코락서니	꼬트머리	모가치	바가지	바깥	사타구니
싸라기	이파리	지붕	지푸라기	짜개	

해설

명사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다른 품사로 바뀌거나 뜻만 달라지는 경우에도, 명사의 본 모양을 밝히어 적는다. 이 경우의 ‘이’는 어간에 붙는 ‘이’처럼 규칙적으로 널리 결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1의 예와 같이 명사가 중복되면서 ‘이’가 결합하여 부사화하는 형식은 꽤 널리 적용된다.

간간이	겹겹이	길길이	눈눈이	땀땀이	번번이
사람사람이	옆옆이	줄줄이	참참이	철철이	첩첩이
툼툼이	나날이	다달이	꿀꿀살살이	구구절절이	사사건건이

품사는 달라지지 않으면서 뜻만 달라지는 것으로는

각설이	검정이	고리눈이	네눈이	딸깍발이	맹문이
생손이	왕눈이	외톨이	외팔이	우걱뿔이	통방울이

따위도 있다. ‘외톨이’는 ‘외톨(← 외돌토리)’에 ‘-이’가 결합한 구조이므로, ‘외톨이’로 적는 것이다.

붙임 ▶▶ 명사 뒤에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결합하여 된 단어의 경우는, 그것이 규칙적으로 널리 결합하는 형식이 아니므로, 명사의 형태를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골양) 고랑	(굴렁) 구렁	(끝으러리) 꼬트러기
(목아지) 모가지	(살애) 사태-고기	(속아지) 소가지
(솔엿) 소댕	(올아기) 오라기	(털억) 터럭

‘모가치’는 ‘뭇’에 ‘-아치’가 붙어서 된 단어다. 따라서 본 규정을 적용하여 ‘목사치’로 적을 것이지만, 사람들이 그 어원적인 형태를 인식하지 못하며, 또 발음 형태도 [모가치]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관용에 따라 ‘모가치’로 적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유형으로 ‘값어치’가 있다. ‘값어치’에서의 ‘어치’는 사전들에서 접미사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본 규정을 적용하여 ‘값서치’로 적을 것이고, ‘모가치’의 경우와 같이 발음 형태를 취한다면 ‘가버치’로 적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 푼어치, 십 원어치, 백 불(달러)어치, 천 엔어치, 만 프랑어치, 십만 마르크어치, ……」처럼 쓰이는 ‘어치’는 (의존) 명사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은 ‘어치’가 붙는 ‘푼, 원, ……」, ‘값’ 등의 형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서, ‘푼너치, 원너치, ……」 같은 표기 형태에 거부감을 가지게 된다. 그리하여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형식으로 다루어서, 관용에 따라 ‘값어치’로 적는 것이다.

예외 형식으로는 ‘벼슬아치’도 있다. 이 경우의 ‘-아치’(동냥아치, 장사아치)는 접미사로 다루어진다. 따라서 본 규정을 적용하면, ‘벼스라치’로 적을 것이지만, 역시 사람들이 ‘벼슬(동냥, 장사)’의 형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관용에 따라 ‘벼슬아치’로 적는다.

또 표준어 규정 제17항에서 다루어진 ‘반빛아치’는 ‘반빔(반찬 만드는 일)에 -아치’가 붙어서 된 단어이지만, 발음 형태가 [반비다치로 굳어져 있어서 ‘반비사치’로 적을 수 없는 것이므로, 관용에 따라 ‘반빛아치’로 적는다.

본 규정에 따라 해석하면,

원칙적인 형식	목사치, 갑서치, 벼스라치, 반비사치
예외적인 형식	모가치, 값어치, 벼슬아치, 반빗아치

에서, 예외적인 형식을 취한 것이다.

바로바로 쓱!

1 다음 중에서 표기가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 ① 마개 ② 만듦 ③ 비로서
④ 쇠붙이 ⑤ 귀머거리

2 다음 () 안에 표기된 것 중 바른 것을 고르시오.

- ① 무(르팍, 룬팍) ② 빈털(털이, 터리)
③ 설(겅이, 거지) ④ 더(옥이, 우기)
⑤ 귀(머거리, 먹어리)

3 다음 명사 뒤에 접미사가 결합된 말 중에서 맞춤법에 어긋나는 것을 고르시오.

- ① 곳곳이 ② 굴영 ③ 낱낱이
④ 외톨이 ⑤ 끄트러기

제21 항 |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명사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것

값지다	홀지다	넋두리
빛깔	옆당이	임사귀

2.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것

낙시	늘정어	덮개	뜯게질
값작값작하다	값작거리다	뜯적거리다	뜯적뜯적하다
굶다랗다	굶직하다	값숙하다	넓적하다
높다랗다	늘수그레하다	엷죽엷죽하다	

손톱이나 칼끝 따위로 자주 뜯거나 진질을 낸다.

다만 다음과 같은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1)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

할짝거리다	넋따랗다	넋찍하다	말끔하다
말썩하다	말짱하다	실쭉하다	실끔하다
알따랗다	알팍하다	짤따랗다	짤막하다
실컷			

싫은 생각이 있다.

(2)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본뜻에서 멀어진 것

넙치	올무	골막하다	납작하다
----	----	------	------

담긴 것이 가득 차지 아니하고 조금 모자란 듯하다.

해설

명사나 어간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결합하여 된 단어는, 그 명사나 어간의 형태를 밝히어 적는다.

(값) 값지다	(꽃) 꽃답다	(끝) 끝내
(맛) 맛깔스럽다	(멋) 멋지다	(밀) 밀지다
(별) 별늪	(부엌) 부엌데기	(빛) 빛쟁이
(빛) 빛깔	(숯) 숯쟁이	(숲) 숲정어
(앞) 앞장(-서다)	(엮) 엮구리	(임) 임사귀
(흙) 흙질(-하다)	(굶) 굶적거리다, 굶죽거리다	(넓) 넓죽하다
(높) 높다랗다	(늘) 늘다리, 늘바탕, 늘수그레하다	(몹) 몹숙하다, 몹수그레하다
(엷) 엷적엷적하다	(엮) 엮지르다	(옳) 옳조리다

마을 근처에 있는 수물

알맞게 옳다.

다만 2에 딸린 규정으로서, (1)은 겹받침에서 뒤엷것이 발음되는 경우에는 그 어간의 형태를 밝히어 적고, 앞엷것만 발음되는 경우에는 어간의 형태를 밝히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굶다랗다[국-], 굶적거리다[국-], 늘수그레하다[늑-]’ 따위는 어간의 형태를 밝히어

적지마는, ‘할짝거리다, 말끔하다, 실쭙하다’ 따위는 어간의 형태(할-, 말-, 실-)를 밝히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게 된다. ‘넙적하다, 넙적다리’를 ‘넙적하다, 넙적다리’로 적지 않는 이유는, 겹받침 ‘넙’(넙-)에서 뒤의 ‘ㅂ’이 발음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다만, ‘넙따랗다, 넙적하다’는 ‘넙다’에서 파생된 것이나 ‘넙르다’에서 파생된 것이나 하는 데 이견(異見)이 있을 수 있다. ‘넙르다’(공간으로 넓다.)와 대응시켜 볼 수도 있으나, ‘넙다’에서 파생된 것으로 해석하여 (1)에서 다루었다.

(2)는, 어원이 분명하지 않거나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것이다. ‘넙치’는 한자어 ‘광어(廣魚)’와 대응시켜 볼 때 ‘넙다’와 결부되는 것으로 생각되긴 하지만, 그 어원적 형태가 인식되지 않는 것이므로, 소리 나는 대로 ‘넙치’로 적는다. 그리고 ‘올무’(새나 짐승을 잡는 올가미)도 ‘올다’와 연관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역시 어원적 형태가 인식되지 않는 것이므로, ‘올무’로 적는다. 이와는 달리, ‘골막하다’는 ‘골다’와 연관되지 않고, ‘납작하다’는 ‘넙적하다’의 작은말로 설명되지만, ‘납다, 납다’ 같은 단어가 없으므로, 어원이 불분명한 것으로 다루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다.

■ 겹받침에서의 발음과 표기

겹받침에서 뒤엿것이 발음	어간의 형태를 밝혀 표기	굶다랗다(국-)) 늪수그레하다(늑-)	굶적거리다(극-)) 넙적하다(넙-)
겹받침에서 앞엿것이 발음	소리 나는 대로 표기	할짝거리다(할-)) 실쭙하다(실-)	말끔하다(말-)

바로바로 쑥!

1 다음 중, 표기가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 ① 덮개 ② 올무 ③ 값지다
④ 넙따랗다 ⑤ 갈짝거리다

2 다음 (ㄱ, ㄴ)으로 표기된 것 중 바른 것을 고르시오.

- ① (넙다, 넙따)란 그릇 ② (굶다, 굶따)란 나무
③ (넙직, 넙찍)한 마당 ④ (굶직, 굶찍)한 목소리

3 다음 문장에서 잘못된 표기를 찾아 바르게 쓰시오.

- ① 자연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빛깔이 어우러졌다. ➡ _____
② 질푸른색의 잎사기가 풍성하게 돌아나 있다. ➡ _____
③ 어머니가 뜨게질해서 만들어 주신 옷이구나. ➡ _____

제22항 | 용언의 어간에 다음과 같은 접미사들이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은 그 어간을 밝히어 적는다.

1. ‘-기-, -리-, -이-, -히-, -구-, -우-, -추-, -으키-, -이키-, -애-’가 붙는 것

말기다	웁기다	웃기다	쫓기다	뚫리다	울리다
წყი다	쌓이다	활이다	굳히다	굽히다	넓히다
앉히다	엮히다	잡히다	돌구다	숫구다	돈우다
갖추다	곧추다	맞추다	일으키다	돌이키다	없애다

다만 ‘-이-, -히-, -우-’가 붙어서 된 말이라도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도리다(칼로~)	드리다(용돈을~)	고치다	바치다(세금을~)
부치다(편지를~)	거두다	미루다	이루다

2. ‘-치-, -뜨리-, -트리-’가 붙는 것

놓치다	덮치다	떠받치다	받치다	발치다
부딪치다	뺨치다	엮치다	부딪뜨리다/부딪트리다	
쏟뜨리다/쏟트리다	젖뜨리다/젖트리다	찢뜨리다/찢트리다	흠뜨리다/흠트리다	

붙임 ▶▶ ‘-업-, -음-, -브-’가 붙어서 된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미답다	우습다	미쁘다
-----	-----	-----

해설

1. 이 접미사들은 다만 피동, 사동 등의 의미와 기능을 표시하는 요소이므로, 실질 형태소인 (본디의) 어간과는 분명하게 구별된다. 곧, ‘(본디의) 어간+피동화 사동화 요소+어미’의 구조에 있어서 피동화, 사동화 요소의 첨가는 규칙적인 형식으로 성립되는 것이다. 피동화, 사동화 접미사가 파생어의 어간을 형성하는 성분이면서도 본디의 어간과 분명히 구별되며, 규칙적인 형식으로 결합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본디 어간의 형태를 밝히어 적음으로써, 그 의미가 쉽게 파악되도록 하는 것이다.

‘납다’의 피동사나 사동사는 마찬가지로 ‘납이다’로 적으며, ‘눅다, 눅다(柔, 軟), 썩다’의 사동사는 ‘눅이다(×눅히다), 눅이다(×눅히다), 썩이다’로 적는다. 그리고 ‘돌우다, 돌구다’는, 안경의 도수(度数) 따위를 높게 하다란 뜻으로는 ‘돌구다’를, 높아지게 하다, 끌어올리다란 뜻으로는 ‘돌우다’를 쓰는 게 통례다. 흔히 사용되고 있는 ‘늘구다(→늘리다, 늘이다), 떨구다(→떨어뜨리다)’ 등은 비표준어로 다루어지는 것이다.

다만 어원적인 형태는 어간에 접미사 ‘-이-, -히-, -우-’가 결합한 것으로 해석되더라도, 본 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피동이나 사동의 형태로 인식되지 않는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예시어 ‘도리다, 드리다, 고치다, 바치다, 부치다, 거두다, 미루다, 이루다’는 ‘돌(廻)이다, 들(入)이다,

곧(直)히다, 받(受)히다, 붙(附)히다, 걷(擧, 捲)우다, 밀(推)우다, 일(起)우다'와 같은 사동의 형태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2. 이 경우는 처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결합하는 형식이므로, 전항(제21항) 규정의 적용 대상이기도 하다.

‘-뜨리, -트리’는 지금까지 ‘뜨리’만을 취했었으나, 표준어 규정(제26항)에서 두 가지를 다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뻘치다(∼까지 미치다, 당다), 뻘치다(‘뻘지르다’의 강세어)’는 구별 없이 ‘뻘치다’로 적는다. (제55항 참조.) 또 ‘부딪다, 부딪치다, 부딪히다, 부딪치이다’는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부딪다	힘있게 마주 닿다, 또는 그리 되게 하다.
부딪치다	‘부딪다’의 강세어
부딪히다	‘부딪다’의 피동사. 부딪음을 당하다의 뜻
부딪치이다	‘부딪치다’의 피동사. 부딪침을 당하다의 뜻

붙임 ▶▶ ‘미덥다, 우습다, 미쁘다’는 ‘(민다) 믿엽다, (웃다) 웃읍다, (민다) 믿쁘다’처럼 형성된 단어인데, 제19항 붙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역사적인 현상으로는, ‘고프다(← 곱쁘다), 기쁘다(← 깃쁘다), 나쁘다(← 낫쁘다), 바쁘다(← 밧쁘다), 슬프다(← 슬쁘다)’ 따위도 이런 유형이다.

제23항 | 용언의 어간에 다음과 같은 접미사들이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은 그 어간을 밝히어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ㅇ)	ㄴ(ㅁ)	ㄱ(ㅇ)	ㄴ(ㅁ)
갈쪽이	갈쭈기	살살이	살사리
꿀꿀이	꿀꾸리	쌔쌔이	쌔쌔기
눈깜짝이	눈깜짜기	오뚝이	오뚜기
더떨이	더퍼리	코납작이	코납자기
배불뚝이	배불뚜기	푸석이	푸서기
빠죽이	빠주기	훌쭉이	훌쭈기

붙임 ▶▶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나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개구리	귀뚜라미	기러기	각두기	팽과리
날라리	누더기	동그라미	두드러기	딱따구리
매미	부스러기	빠꾸기	얼루기	칼썩두기

해설

통일안에는 ‘-하다’가 붙은 어근으로 되어 있는데, ‘-거리다’가 붙은 어근까지 포함시켰다.

접미사 ‘-하다’나 ‘-거리다’가 붙은 어근이란, 곧 동사나 형용사가 파생될 수 있는 어근을 말한다. 제19항 및 제24항과 연관되는 규정인데, 예컨대 ‘깜짝깜짝-깜짝하다, 깜짝거리다, 깜짝이다, (눈)깜짝이’와 같이 나타나는 형식에 있어서, 실질 형태소인 어근 ‘깜짝-’의 형태를 고정시킴으로써, 그 의미가 쉽게 파악되도록 하는 것이다.

‘(더떨거리다) 더떨이(輕率人), (빠죽거리다) 빠죽이(易怒人), (살살거리다) 살살이(奸人), (푸석하다) 푸석이(脆物)’는 통일안에서 ‘더퍼리, 빠죽기, 살사리, 푸서기’로 하였던 것을 이번에 바꾸었다. 그리고 ‘(깎쭈거리다) 깎쭈이(銀錢)’는 사전에서 ‘깎쭈기’로 다루어지던 것이다. ‘(홀쭉하다) 홀쭉이’는 몸이 야위어 가냘픈 사람을, ‘(꿀꿀거리다) 꿀꿀이’는 계집스럽고 욕심이 많은 사람, 또는 꿀꿀이죽(의 준말)을 이르는 말이다.

한편, ‘오뚝이(不倒翁)’는 사전에서 ‘오뚝이’로 다루던 것인데, 표준어 규정(제8항)에서 ‘오뚝이’로 바꾸었으며, 부사도 ‘오뚝이(<우뚝이)’로 적는다.(제25항 참조.) 또 ‘(씩씩거리다) 켁켁이’는 ‘ㄱ기’를 이르는 말이다. ‘씩씩’이란 울음소리를 시늉하여 지은 것이긴 하지만, ‘씩씩거리다’와 거리가 먼 곤충의 이름은 ‘켁켁기’로 적는다. 같은 음절이 겹쳐 나는 구조이므로, ‘켁새기’로 적지 않는다.(제18항 참조.)

붙임 ▶▶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나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결합하여 파생된 명사의 경우는, 그 어근 형태를 밝혀 적지 않는다.

‘딱따구리’는 통일안(제22항)에서 ‘딱다구리’로 하였던 것을 이번에 바꾸었다. 의성어 ‘딱딱’에 접미사 ‘-우리’가 결합한 형태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얼룩이(斑點)/얼루기(斑毛獸)’로 다루어지고 있는 단어는 구별 없이 ‘얼루기’로 적는다.

한편, ‘깍두기, 칼썩두기(切麵)’에서의 ‘깍둑, 썩둑’은 ‘깍둑거리다(<꺅둑거리다), 썩둑거리다(>삭둑거리다)’에서의 ‘깍둑-, 썩둑-’과 연관시켜 볼 수도 있으나, 어근의 본뜻이 인식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 형태를 밝혀 적지 않는다. 그리고 ‘부스러기’는 ‘부스러거리다’란 의성어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부스러이’로 적지 않는다.

■ 어근에 붙는 접미사를 표기하는 조건

어근	① 깜빡-	② 썩썩-	③ 오뚝-	④ 개굴-
첩어	깜빡깜빡	×	×	개굴개굴
‘-거리다’	깜빡-거리다	썩썩-거리다	×	×개굴-거리다 개굴개굴-거리다
‘-하다’	깜빡-하다	×	오뚝-하다	×개굴-하다 개굴개굴-하다
‘-이다’	깜빡-이다	썩썩이다	×	×개굴-이다 개굴개굴-이다
‘-이’ 표기형	깜빡-이	썩썩이	오뚝-이	×개굴-이 개구리

제24항 |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시늉말 어근에 ‘-이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어근을 밝히어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O)	ㄴ(X)	ㄱ(O)	ㄴ(X)
깜짝이다	깜짜기다	속삭이다	속사기다
꾸벅이다	꾸버기다	속덕이다	속더기다
꼬덕이다	꼬더기다	울먹이다	울머기다
뒤척이다	뒤쳐기다	움직이다	움지기다
들먹이다	들머기다	지껄이다	지꺼리다
망설이다	망서리다	퍼덕이다	퍼더기다
번득이다	번드기다	허덕이다	허더기다
번쩍이다	번쩌기다	헐떡이다	헐떠기다

해설

접미사 ‘-이다’는 규칙적으로 널리(여러 어근에) 결합한다. 예컨대 ‘꾸벅하다, 꾸벅거리다, 꾸벅이다’처럼 나타나는 형식에서 실질 형태소인 ‘꾸벅’의 형태가 고정되지 않으면, 의태어(擬態語)인 ‘꾸벅꾸벅’과의 연관성이 이해되기 어려워진다. 그리하여 어근과 ‘이다’가 구별되게 적는 것이다.

(간질간질) 간질이다	(간죽간죽) 간죽이다	(곰적곰적) 곰적이다
(끈적끈적) 끈적이다	(곰적곰적) 곰적이다	(덜렁덜렁) 덜렁이다
(덥적덥적) 덥적이다	(뒤적뒤적) 뒤적이다	(들썩들썩) 들썩이다
(펼럭펼럭) 펼럭이다	(훌쩍훌쩍) 훌쩍이다	

실질 형태소 고정	+	접미사
‘꾸벅’		‘-하다, -거리다, -이다’

마로마로 쑥!

1 다음 중, 표기가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 ① 날라리 ② 누더기 ③ 두드러기
④ 배불퓀 ⑤ 살사리

2 다음 () 안의 표기 중 바른 것을 고르시오.

- ① 바다(거북이 / 거부기)의 산란기이다.
② 너희는 마치 (똥똥이 / 똥뚜기)와 (훌쭉이 / 훌쭉기) 같다.
③ 마을 사람들이 모여 (쑥덕이고 / 쑥더기) 있었다.
④ 불빛에 (반짝이는 / 반짜기는) 금발머리가 아름답다.

제25항 |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는 경우

급히	꾸준히	도저히
딱히	어렵듯이	깨끗이

붙임 ▶▶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갑자기	반드시(꼭)	슬며시
-----	--------	-----

2.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

곰곰이	더욱이	생긋이
오뚝이	일찍이	해죽이

해설

‘-하다’가 붙는 어근이란, ‘급(急)하다, 꾸준하다, 도저(到底)하다’처럼 접미사 ‘-하다’가 결합하여 용언이 파생되는 어근 형태소를 말한다. 그리고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란, 품사는 바뀌지 않으면서 발음 습관에 따라, 혹은 감정적 의미를 더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부사 형태에 ‘-이’가 결합하는 형식을 말한다.

1. ‘-이’나 ‘-히’는 규칙적으로 널리(여러 어근에) 결합하는 부사화 접미사다. 그리하여 명사화 접미사 ‘-이’나 동사, 형용사화 접미사 ‘-하다’, ‘-이다’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결합하는 어근의 형태를 밝히어 적는다.

(나란하다) 나란히	(넉넉하다) 넉넉히	(무던하다) 무던히
(속하다) 속히	(뚜렷하다) 뚜렷이	(버젓하다) 버젓이

그러나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는 어근과 접미사의 결합체로 분석되지 않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다. ‘반듯하다(正, 直)’의 ‘반듯-’에 ‘-이’가 붙은 ‘반듯이(반듯하게)’와 ‘반드시(必)’는 뜻이 다른 단어다.

반듯이(반듯하게) 서라.	그는 반드시(꼭) 돌아온다.
---------------	-----------------

2. 발음 습관에 따라, 혹은 감정적 의미를 더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부사 형태에 ‘-이’가 결합된 경우는, 그 부사의 본 모양을 밝히어 적는 것이다.

‘곰곰이’는 ‘곰곰’을 표준어로 삼았으나, 이번에 ‘곰곰이’도 인정하였다.(표준어 규정 제26항 참조.) 그리고 ‘더욱이, 일찍이’는 ‘더우기, 일찌기’(‘더욱, 일찍’은 준말로)로 적던 것을 이번에 바꾸었다. ‘더욱-이, 일찍-이’처럼 ‘부사+ -이’의 구조로 설명된다. 또 ‘오뚝이’는 명사와 부사의(표기) 형태가 동일한데, 표준어의 형태가 ‘오뚝이(〈우뚝이〉)’였던 것을 ‘오뚝이(〈우뚝이〉)’로 바꾸었다.(표준어 규정 제8항 참조.) 부사화 접미사 ‘-이, -히’의 구별은 제51항에서 다루었다.

제26항 | ‘-하다’ 나 ‘-없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하다’ 나 ‘-없다’를 밝히어 적는다.

1. ‘-하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 것

딱하다	술하다	착하다	텅텅하다	묵하다
-----	-----	-----	------	-----

2. ‘-없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 것

부질없다	상없다	시름없다	열없다	하염없다
------	-----	------	-----	------

해설

1. 예시어 중 ‘술하다’는 어원적으로 명사 ‘술(物量)’에 형용사 ‘하다(多)’가 결합하여 된 단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술’에 접미사 ‘-하다’가 결합된 구조로 인식되고 있다. ‘술하다’ 이외의 단어들에 있어서는 어근(및 접미사)이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다’는 어근 뒤에 결합하여 동사나 형용사가 파생되게 하는 요소이므로, 이 단어들에서의 ‘딱, 착’ 따위도 어근으로 다루어지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다’는 규칙적으로 널리 결합하는 접미사다. 그러므로 ‘-하다’가 결합된 형식임을 밝히어 적음으로써 형태상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꽁하다	늑늑하다	단단하다	멍하다	뻘하다
성하다	욱하다	찜찜하다	찰찰하다	탈탈하다

2. ‘부질없이[부지럽씨], 상없이[상업씨], 시름없이[시르몹씨], 열없이[여:럽씨], 하염없이[하여몹씨] 등을 통하여 ‘-없다’가 결합된 형식임을 알 수 있다. ‘상없다, 시름없다’ 따위를 파생어로 다룰 것이냐 합성어로 다룰 것이냐 하는 데 이견(異見)이 있을 수 있겠지만, 통례에 따라 접미사(-없다) 결합 형식으로 잡아 본 항에서 다루었다.

마음대로 쑥!

1 다음 중, 표기가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 ① 극히 ② 엄격히 ③ 정확히 ④ 번듯히 ⑤ 버젓이

2 다음 (ㄱ, ㄴ)으로 표기된 것 중 바른 것을 고르시오.

- ① 오(푹이 / 뚜기) ② 꿀(꿀이 / 꾸리)
③ 뻘(주기 / 죽이) ④ 깨끗(이 / 히)

3 다음 중, 맞춤법에 맞지 않는 단어를 고르시오.

- ① 나날이 ② 곰곰히 ③ 더욱이 ④ 일찍이 ⑤ 반드시(꼭)

제4절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은 말

교과서 Ⅱ권 24쪽

제27항 |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국말이	꺾꽃이	꽃잎	끝장	물난리
밑천	부엌일	싫증	옷안	웃웃
젓몸살	첫아들	칼날	팔알	헛웃음
홀아비	홀몸	흙내	값없다	겉늬다
굶주리다	낮잡다	맛먹다	반내다	번놓다
빛나가다	빛나다	새파랗다	셋노랗다	시꺼멓다
싯누렇다	엷나가다	엷누르다	엷든다	웃오르다
짓이기다	헛되다			

붙임 1 ▶▶ 어원은 분명하나 소리만 특이하게 변한 것은 변한 대로 적는다.

할아버지	할아범
------	-----

붙임 2 ▶▶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골병	골탕	꿀탕	머칠
아재비	오라비	업신여기다	부리나케

붙임 3 ▶▶ ‘이(齒, 虱)’가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니’ 또는 ‘리’로 소리 날 때에는 ‘니’로 적는다.

간니	덧니	사랑니	송곳니
앞니	어금니	윗니	젓니
톱니	틀니	가랑니	머릿니

해설

예시한 단어들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1) 두 개의 실질 형태소가 결합한 것(합성어)

꽃잎	물난리	부엌일	옷안	젓몸살	칼날
팔알	흙내	끝장	밑천	싫증	값없다
겉늬다	국말이	빛나다	웃오르다	굶주리다	꺾꽃이
낮잡다	반내다	번놓다	엷누르다		

(2) 접두사가 결합한 것(파생어)

웃웃	헛웃음	홀몸	홀아비	맛먹다	빛나가다
새파랗다	셋노랗다	시꺼멓다	싯누렇다	엷나가다	엷든다
짓이기다	헛되다				

(1)에서 보인 ‘끝장, 밀천, 싫증’이 합성어나 하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끝장’의 ‘장’을 ‘초장(初場), 파장(罷場)’의 ‘장(場)’과 같은 것으로 볼 때, 이 ‘장’은 하나의 어휘(한자어) 형태소로 해석되므로, ‘끝장’을 고유어와 한자어가 결합한 합성어로 다룬 것이라고 설명된다. 그리고 ‘밀천’의 ‘천’은 ‘전(錢)’이 바뀐 형태라고 볼 때, ‘밀(← 밀절미)–천’에서의 ‘천’도 하나의 어휘 형태소로 해석되기 때문에 합성어로 다룬 것이라고 설명된다. 또 ‘싫증’의 ‘증(症)’ 역시 단어 문자인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 형태소로 해석되기 때문에(그리하여 [실증]으로 발음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합성어로 다룬 것이라고 설명된다.

둘 이상의 어휘 형태소가 결합하여 합성어를 이루거나, 어근에 접두사가 결합하여 파생어를 이룰 때, 그 사이에서 발음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실질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히어 적음으로써, 그 뜻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꺾꽂이’는 ‘꺾다, 꽃다’란 뜻이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꺾꽂이, 꺾꽂이’로 적지 않고, ‘반내다’는 ‘받다, 내다’란 뜻이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반내다, 받내다’로 적지 않는 것이다.

접두사 ‘새-/시-, 셋-/잇-’의 구별은,

새끼말다, 시꺼말다	새빨갈다, 시빨갈다
새파랗다, 시퍼랗다	새하얗다, 시허얗다

처럼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는 ‘새-/시-’를 붙이되, 어간 첫음절이 양성 계열 모음일 때는 ‘새-’, 음성 계열 모음일 때는 ‘시-’로 적으며,

셋노랗다 잇누렷다

처럼, 올림소리 앞에는 ‘셋-/잇-’으로 적도록 하였다. 따라서 ‘새노랗다, 시누렷다’는 바른 표기 형태가 아닌 것이다.

■ 접두사 ‘새-/시-, 셋-/잇-’의 구별

된소리, 거센소리 앞		올림소리 앞	
어간 첫음절이 양성 모음	어간 첫음절이 음성 모음	어간 첫음절이 양성 모음	어간 첫음절이 음성 모음
새-	시-	셋-	잇-
새끼말다 새빨갈다	시꺼말다 시빨갈다	셋노랗다	잇누렷다

붙임 1 ▶▶ ‘할아버지, 할아범’은 ‘한아버지, 한아범’이 바뀐 형태다. 곧 옛말에서 ‘큰’이란 뜻을 표시하는 ‘한’이 ‘아버지, 아범’에 결합한 형태가 바뀐 것이다.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① 어원은 분명하나,

한-아버지 한-아범

② 소리만 특이하게 변한 것은 변한 대로 적는다.

한 → 할

③ 다만, 실질 형태소의 기본 형태를 밝히어 적는다.

(할)아버지 (할)아범

붙임 2 ▶▶ ‘골병’은 사전에서 ‘속 깊이 든 병, 심한 타격을 받은 손해’, ‘골탕’은 ‘소의 등골이나 머릿골에 녹말을 문히고 달걀을 씌워, 맑은장국이 끓을 때 넣어 익힌 국’이라고 풀이되어 있어서, 그 어원적 형태가 ‘골(골수)-병(病), 골(골수)-탕(湯) 인지, ‘끓-병(病), 끓-탕(湯) 인지, 혹은 ‘골병(骨病), 골탕(骨湯) 인지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골탕’(속을 끓이는 걱정)의 앞부분은 ‘끓-’로 분석되지만, 뒷부분은 ‘탕(湯) 인지 ‘당’ 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 ‘며칠’은 ‘몇-일(日)’로 분석하기 어려운 것이니, 실질 형태소인 ‘몇’과 ‘일(日)’이 결합한 형태라면 [면닐→면닐]로 발음되어야 하는데, 형식 형태소인 접미사나 어미, 조사가 결합하는 형식에서와 마찬가지로 ‘ㅈ’ 받침이 내리 이어져 [며칠]로 발음된다. ‘이틀(二日)’도 어원이 분명하지 않은 단어다. 이 단어를 ‘인홀’이나 ‘잇홀’로 적는다면, ‘홀’은 ‘사홀, 나홀’ 등의 ‘홀’과 공통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인, 잇’은 무슨 뜻의 형태소인지 알 수가 없다. 한자어 ‘이(二)’와 결부시키기도 어려운 것이다.

‘아재비’는 그 옛 형태가 ‘아자비’였으므로, ‘아제(弟)-아비→(제아비)아제비→아자비→아재비’처럼 해석될 수 있지만, 현대어 ‘아재비’를 ‘맞애비’로 분석하여 적을 수는 없는 것이다. ‘오라비’도 접두사 ‘을-’과 ‘아비’로 분석되지 않는다.

‘업신여기다’(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내려다보거나 없는 것과 같이 생각하다.)는 ‘없이 여기다’에서 온 것으로 생각되지만, ‘ㄴ’ 음이 첨가될 환경(조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없이 여기다→[업:씬여기다]’에 대한 설명이 어려워진다.

‘부리나케’(급하고 빠르게)는 ‘화급(火急)하게’와 대응되는 말이므로 ‘불이 나게’ 바뀌어 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발음 형태 [부리나케]로 볼 때는 ‘불이 낭게’와 결부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원이 불분명한 단어들은, 그 원형을 밝히려 하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다.

한편, ‘섣부르다’(숨씨가 설고 어설프다.)도 이 규정에 따라 ‘서뿌르다’로 적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설다’(경험이 없어 서투르다.)와의 연관성이 인정되는 구조이므로, 제29항 규정을 적용하여 ‘(설부르다)섣부르다’로 적기로 하였다.

붙임 3 ▶▶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구조의 단어에서 실질 형태소는 본 모양을 밝히어 적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齒, 虱)’의 경우는 예외로 다룬 것이다. ‘이(齒)’는 옛말에서 ‘니’였으나, 현대어에서는 ‘이’가 표준어로 되어 있다. 따라서 ‘간이, 덧이’처럼 적고, [니]로 발음되는 것은 ‘ㄴ’ 음 첨가 현상으로 설명하는 게 본 항 규정에 맞는 일이지만, ‘송곳이, 앞이’처럼 적으면 ‘송곳, 앞’에 주격 조사 ‘이’가 붙은 형식과 혼동됨으로써 [송고시, 아피]로 읽힐 수도 있으며, 새끼 이를 ‘가랑이’로 적으면 끝이 갈라져 벌어진 부분을 이르는 ‘가랑이’와 혼동될 수 있다. 그리하여 다른 단어나 접두사 뒤에서 [니] 또는 [리]로 소리 나는 ‘이’는 ‘간니(代生齒), 덧니, 틀니, ……가랑니(幼虱), 머릿니(頭髮蟲), ……」처럼 적기로 한 것이다.

제28항 |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
니 나는 대로 적는다.

물을 높은 곳에서 퍼 올리는 기계	다달이 (달-달-이)	따님 (딸-님)	마되 (말-되)	마소 (말-소)
	무자위 (물-자위)	바느질 (바늘-질)	부나비 (불-나비)	부삽 (불-삽)
	부손 (불-손)	소나무 (솔-나무)	싸전 (쌀-전)	여닫이 (열-닫이)
	우짚다 (울-짚다)	화살 (활-살)		

해설

합성어나 (점미사가 붙은) 파생어에서 앞 단어의 ‘ㄹ’ 받침이 발음되지 않는 것은 발음되지 않는
형태로 적는다. 이것은 합성어나, 자음으로 시작된 점미사가 결합하여 된 파생어의 경우는 실질 형
태소의 본 모양을 밝히어 적는다는 원칙에 벗어나는 규정이지만, 역사적인 현상으로서 ‘ㄹ’이 떨어
져 있기 때문에, 어원적인 형태를 밝혀 적지 않는 것이다. ‘ㄹ’은 대체로 ‘ㄴ, ㄷ, ㅅ, ㅈ’ 앞에서 탈
락하였다.

‘ㄹ’ 받침이 떨어진 단어로는

물이 괴어 있는 논

(날날이) 나날이	(물논) 무논	(물수리) 무수리	(밀닫이) 미닫이
(불넉기) 부넉기	(아들님) 아드님	(줄늑시) 주늑	(찰돌) 차돌(石英)
(찰조) 차조	(찰지다) 차지다	(하늘님) 하느님	

따위도 있다. 그리고 한자 ‘불(不)’이 첫소리 ‘ㄷ, ㅈ’ 앞에서 ‘부’로 읽히는 단어의 경우도 ‘ㄹ’이
떨어진 대로 적는다.

단(不斷), 부당(不當), 부동(不同, 不凍, 不動), 부득이(不得已), 부등(不等), 부적(不適), 부정(不正,
不貞, 不定), 부조리(不條理), 부주의(不注意), ……

다들 다들 쑥!

1 다음 중, 표기가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 ① 부리나케 ② 싫증 ③ 홀아비
④ 사랑니 ⑤ 흘뭍

2 다음 () 안의 낱말 중 알맞은 것을 찾아 ○표 하시오.

- ① 오늘이 (며칠 / 몇일)이나?
② 지난 (며칠 / 몇일) 동안 비가 계속 내렸다.
③ 괜히 (선부른 / 첫부른 / 서뽀른) 짓 하지 마라.

3 다음 문장에서 잘못된 표기를 찾아 바르게 쓰시오.

- 불을 켜자 어디선가 불나비 한 마리가 날아왔다. ➡ _____

제29항 |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

반진고리 (바느질~)	사흘날 (사흘~)	삼진날 (삼질~)
설향 (설향~)	술가락 (술~)	이틀날 (이틀~)
잠주름 (잠~)	풀소 (풀~)	설투르다 (설향~)
잠다듬다 (잠~)	잠다랗다 (잠~)	

해설

‘ㄹ’ 받침을 가진 단어(나 어간)가 다른 단어(나 접미사)와 결합할 때, ‘ㄹ’이 [ㄷ]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 이 경우 역시 합성어나,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결합하여 된 파생어는 실질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히어 적는다는 원칙에 벗어나는 규정이지만, 역사적 현상으로서 ‘ㄷ’으로 바뀌어 굳어져 있는 단어는 어원적인 형태를 밝히어 적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 규정의 대상은 ‘ㄹ’이 ‘ㄷ’으로 바뀐 것이므로, 제7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ㄹ’ 받침이 ‘ㄷ’으로 바뀐 단어로는

(나흘날) 나흘날	(잘갈다) 잘갈다	(잘갈리다) 잘갈리다
(잘널다) 잘널다	(잘다랗다) 잘다랗다	(잘타다) 잘타다

따위도 있다.

바로바로 쑥!

1 다음 중, 표기가 잘못된 것을 모두 고르시오.

- | | | |
|-------|--------|-------|
| ① 다달이 | ② 따님 | ③ 물논 |
| ④ 쌀전 | ⑤ 아들님 | ⑥ 술나무 |
| ⑦ 하느님 | ⑧ 반진고리 | |

2 다음 () 안의 낱말 중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 ① 그는 (찰진 / 차진) 밥을 좋아한다.
 ② 월간지를 (다달이 / 달달이) 구독하다.

3 다음 문장에서 잘못된 표기를 찾아 바르게 쓰시오.

- ① 그는 다음 달 사흘날에 돌아온다. ➡ _____
 ② 셋달이 둘이라도 시원치 않다. ➡ _____

제30항 |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고랫재	귓밥	나룻배	나뭇가지
넋가	넋가지	뒷갈망	맷돌
머릿기름	모깃불	못자리	바닷가
뱃길	뱃가리	부싷돌	선짓국
씻조각	아랫집	우렁잇속	잇자국
젓더미	조갯살	찹집	젓바퀴
킷값	핏대	햇벌	햇바늘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멧나물	아랫니	텃마당	아랫마을	뒷머리
잇몸	깻묵	넋물	빋물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도리깻열	뒷웃	두렛일	뒷일	뒷입맛
베깻잎	웃잎	깻잎	나뭇잎	땃잎

2.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귓병	머릿방	뱃병	붓독	사자밥
샛강	아랫방	자릿세	전셋집	찻잔
찻종	춧국	콧병	탯줄	뒷세
핏기	햇수	혓가루	혓배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겻날	제삿날	훗날	뒷마루	양치물
----	-----	----	-----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가윗일	사삿일	예삿일	훗일
-----	-----	-----	----

3.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차간(車間)	뒷간(退間)	횃수(回數)

해설

사이시옷을 적는 경우는,

(1) 고유어+고유어, 고유어+한자어가 결합한 합성어 중, 앞 단어의 끝모음 뒤에 폐쇄되는 구조로서,

①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 등이 된 소리로 나는 것	꽃밥, 나룻배, 나뭇가지 등
② 폐쇄시키 는 음[ㄷ]이 뒤의 'ㄴ, ㅁ'에 동화되어 [ㄴ]으로 발음되는 것	아랫니, 텃마당, 빗물 등
③ 뒤 단어의 첫소리로 [ㄴ]이 첨가되면서 폐쇄시키는 음[ㄷ]이 동화되어 [ㄴㄴ]으로 발음되는 것	뒷일, 베갯잇, 갯잇 등

(2) 두 글자(한자어 형태소)로 된 한자어 중, 앞 글자의 모음 뒤에서 뒤 글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6개 단어에 사이시옷을 붙여 적기로 한 것이다.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퇴간(退間) 횡수(回數)

■ 기타 사이시옷 용법

사이시옷 ×	① 앞 단어의 끝이 폐쇄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개-구멍, 배-다리, 새-집(鳥巢), 머리-말(序言)
	② 뒤 단어의 첫소리가 된소리나 거센 소리가므로	개-똥, 보리-쌀, 허리-띠, 개-필, 배-탈, 허리-춤
사이시옷 ○	③ 앞 단어의 끝이 폐쇄되면서, 뒤 단어의 첫소리가 경음화될 때	갯값, 냇가(川邊), 뱃가죽(腹皮), 셋(← 사이)길(間路), 컷병(病), 깃(旗)대, 셋(貰)돈, 핫(火)김 [ㄴ:갯, 냇:갯, 셋:개]
	④ 앞 단어의 끝이 폐쇄되면서 자음 동화 현상(ㄷ+ㄴ → ㄴ+ㄴ, ㄷ+ㅁ → ㄴ+ㅁ)이 일어날 때	뱃놀이(船遊), 콧날(鼻線), 빗물(雨水), 잇몸(齒齦), 무식(無市)날, 못(汊)물, 팻(牌)말
	⑤ 앞 단어 끝이 폐쇄되면서 뒤 단어의 첫소리로 [ㄴ]음이 첨가되고, 동시에 동화 현상이 일어날 때	[ㄴ:갯+ㄴ → 갯넙] 갯넙, 나뭇잎, 뒷잎, 허드렛일, 기윗(加外)일, 못(汊)일 [나뭇넙 → 나뭇넙]
	⑥ 예외적인 6개의 한자어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퇴간(退間), 횡수(回數)

이 설명에 따르면, '내과(內科), 이과(理科), 총무과(總務課), 장미과(薔薇科)' 등은 3에서 다루어진 6개 이외의 한자어이므로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으며, '나리-과(科), 말선두리-과(科)' 등은, '과'가 비교적 독립성이 약한 형태소이긴 하지만, 앞의 고유어와의 사이에 경계가 인식되는 구조이므로,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 예시와 같이 적는 것이다.

나릿과 말선두릿과

한편, 2 (1)의 예시에 '찻잔, 찻종'에서의 '차'가 순 우리말이나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겠으나, 예로부터 '茶'자의 새김(訓)이 '차'였으므로, 한자어 '다(茶)'와 구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31 항 | 두 말이 어울릴 적에 ‘ㅂ’ 소리나 ‘ㅎ’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1. ‘ㅂ’ 소리가 덧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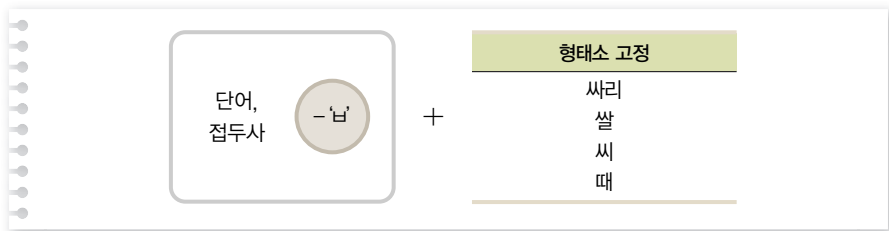
덥싸리(대ㅂ싸리)	몹쌀(메ㅂ쌀)	법씨(벼ㅂ씨)	입때(이ㅂ때)
입쌀(이ㅂ쌀)	접때(저ㅂ때)	좁쌀(조ㅂ쌀)	합쌀(해ㅂ쌀)

2. ‘ㅎ’ 소리가 덧나는 것

머리카락(머리ㅎ가락)	살고기(살ㅎ고기)	수캐(수ㅎ개)
수컷(수ㅎ것)	수탉(수ㅎ닭)	안팎(안ㅎ밖)
암캐(암ㅎ개)	암컷(암ㅎ것)	암탉(암ㅎ닭)

해설

1. ‘싸리(蒭), 쌀(米), 씨(種), 때(時)’ 등은 단어 첫머리에 ‘ㅂ’ 음을 가지고 있었던 단어다. 이 단어들이 다른 단어 또는 접두사와 결합하는 경우, 두 형태소 사이에서 ‘ㅂ’ 음이 발음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구조의 합성어나 파생어에 있어서는 뒤의 단어가 주장이 되는 것이므로, ‘싸리, 쌀, 씨, 때’ 따위의 형태를 고정시키고, 첨가되는 ‘ㅂ’ 을 앞 형태소의 받침으로 붙여 적는 것이다.



이런 단어로는

넙뜨다	부릅뜨다	칩떠보다	휩싸다	휩쓸다
-----	------	------	-----	-----

등도 있다.

한편, ‘덥싸리’ 는 사전에서 ‘대싸리’ 로 다루어지던 단어인데, 표준어 규정(제17항)에서 ‘덥싸리’ 로 정하였다.

2. 옛말에서 ‘ㅎ’ 곡용어이었던 ‘머리(頭), 살(肌), 수(雄), 암(雌), 안(內)’ 등에 다른 단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 중에서, [ㅎ] 음이 첨가되어 발음되는 단어는 소리 나는 대로(뒤 단어의 첫소리를 거센소리로) 적는다.

‘암-, 수-’ 가 결합하는 단어의 경우는, 표준어 규정(제7항 다만)에서

수강아지	수캐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탕나귀	수톨쩌귀	수태지	수평아리
암강아지	암캐	암컷	암키와	암탉	암탕나귀	암톨쩌귀	암태지	암평아리

를 예시하였다.

바로바로 쏙!

1 다음 중, 표기가 잘못된 것을 모두 고르시오.

- | | | |
|--------|-------|-------|
| ① 가윗일 | ② 깨잎 | ③ 나무잎 |
| ④ 땃나물 | ⑤ 소숫점 | ⑥ 아래니 |
| ⑦ 예삿소리 | ⑧ 자릿세 | ⑨ 제삿날 |

2 다음에서 '사이시옷'을 적을 수 없는 단어를 모두 고르시오.

- | | | |
|-------|-------|----------|
| ① 뒤마당 | ② 뒤처리 | ③ 만두국 |
| ④ 머리말 | ⑤ 비물 | ⑥ 세방 |
| ⑦ 차간 | ⑧ 퇴간 | ⑨ 회수(回數) |

3 다음 () 안의 낱말 중 알맞은 것을 찾아 ○표 해 보자.

- ① 그녀는 (혼자말 /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② 할머니는 쌀 한 (되박 / 뒷박)을 수북이 퍼 주었다.
 ③ 어머니는 (보리쌀 / 보릿쌀)을 땃돌에 뿜아 죽을 쑤어 주셨다.
 ④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대가 / 땃가)를 치려야 한다.
 ⑤ 할머니는 감정이 격해지면 술잔 기울이는 (회수 / 횡수)도 잦아진다.

4 다음 문장에서 잘못된 표기를 찾아 바르게 쓰시오.

- ① 대싸리의 줄기로 빗자루를 만들었다. ➡ _____
 ② 그 해에 새로 난 쌀을 해쌀이라고 한다. ➡ _____
 ③ 저번때 제가 말씀드릴 일, 생각해 보셨어요? ➡ _____
 ④ 머리가락 뒤에서 숨바꼭질 한다. ➡ _____

5 다음 () 안의 낱말 중 알맞은 것을 찾아 ○표 하시오.

- ① 눈을 (부르뜨고 / 부릅뜨고) 노려보다.
 ② 전신을 (휘싸는 / 휩싸는) 두려움을 느낀다.
 ③ 꿩의 수컷을 (수꿩 / 숫꿩 / 수꿩)이라고 한다.
 ④ 작년 봄 아버지와 함께 (수돼지 / 숫돼지)를 몰고 왔다.

6 다음 중, 표준어에 ○표 하시오.

- ① 할아버지택 암소가 (수소 / 숫소)를 낳았다.
 ② 들판에 금빛 (벼씨 / 법씨)가 무르익었다.
 ③ 우리 아이는 (살고기 / 살코기)를 좋아한다.
 ④ 국가의 정세가 (안팎 / 안밖)으로 소란스럽다.
 ⑤ (쇠조각 / 쇳조각)을 불에 달구어서 만든다.
 ⑥ 얼굴에 (피기 / 핏기)가 없이 창백하다.
 ⑦ 쌀가마를 (고간 / 곳간)에 쟁여 놓았다.
 ⑧ 교통 시설이 좋은 곳이라 (자리세 / 자릿세)가 비싸다.

제5절
준말

교과서 Ⅱ권 24쪽

제32항 | 단어의 끝모음이 줄어지고 자음만 남은 것은 그 앞의 음절에 받침으로 적는다.

본말	준말
기러기야	기럭아
어제그저께	엇그저께
어제저녁	엇저녁
가지고, 가지지	갓고, 갓지
디디고, 디디지	딛고, 딛지

해설

단어 또는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줄어지고 자음만 남은 경우, 그 자음을 앞 음절의 받침으로 올려붙여 적는다. 곧, 실질 형태소가 줄어진 경우에는 줄어진 형태를 밝히어 적는 것이니, '어제그저께'에서 '어제'의 'ㄴ'이 준 형태는 '엇'으로, '가지고'에서 '가지'의 'ㅣ'가 준 형태는 '갓'으로 적는 것이다.

그런데 줄어지는 음절의 첫소리 자음이 올라붙지 않고 받침소리가 올라붙는 형식도 있다.

바둑-장기 → 박장기

어긋-매끼다 → 엇매끼다

바깥-벽 → 발벽

바깥-사돈 → 발사돈

이 규정을 적용하면, '아가야'에서 '아가'의 'ㅣ'가 줄면 '악야'가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가, 이리 오너라.'처럼 표현하는 형식에서의 '아가'는 '아가야'에서의 '야'가 줄어진 형태로 설명될 수 있다.

호격 조사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야', 모음으로 끝나면 '-야'가 결합된다.

제33항 | 체언과 조사가 어울려 줄어지는 경우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그것은	그건
그것이	그게
그것으로	그걸로
나는	난
나를	날
너는	넌
너를	널
무엇을	뭇을/무얼/뭇
무엇이	뭇이/무에

해설

체언과 조사가 결합할 때 어떤 음이 줄어들거나 음절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그 본 모양을 밝히지 않고 준 대로 적는다.

(그 애 → 개) 그 애는 → 개는 → 갠, 그 애를 → 개를 → 갸

(이 애 → 애) 이 애는 → 애는 → 앤, 이 애를 → 애를 → 앨

(저 애 → 재) 저 애는 → 재는 → 켜, 저 애를 → 재를 → 켄

그리로 → 글로, 이리로 → 일로, 저리로 → 절로, 조리로 → 졸로

그것으로 → 그걸로, 이것으로 → 이걸로, 저것으로 → 저걸로

처럼 줄어지기도 한다.

다만, '아래로 → 알로'는 비표준어로 처리하였다.(표준어 규정 제15항 붙임 참조.)

제34항 | 모음 'ㅏ, ㅑ'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 -었-'이 어울릴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가아	가	가았다	갔다
나아	나	나았다	났다
타아	타	타았다	탸
서어	서	서었다	섰다
켜어	켜	켜었다	켰다
펴어	펴	펴었다	폈다

붙임 1 ▶▶ '개, ㄱ' 뒤에 '-어, -었-'이 어울려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개어	개	개었다	갸
내어	내	내었다	녜
베어	베	베었다	뵈
세어	세	세었다	쎌

붙임 2 ▶▶ '하어'가 한 음절로 줄어서 '해'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하어	해	하었다	했
더하어	더해	더하였다	더했
흔하어	흔해	흔하였다	흔했

해설

모음 ‘ㅏ, ㅑ’로 끝나는 어간에 어미 ‘-아/-어’가 붙는 형식에서는 ‘하/어’가 줄어들며, ‘-았/-었’이 붙는 형식에서는 ‘하/어’가 줄어들고 ‘ㅏ’만 남는다.

따아 → 따	따아서 → 따서	따아도 → 따도	따았다 → 뒀다
건너어 → 건너	건너어서 → 건너서	건너어도 → 건너도	건너었다 → 건넜다

다만, ‘ㅏ’ 불규칙 용언의 어간에서 ‘ㅏ’이 줄어든 경우에는 ‘하/어’가 줄어들지 않는 게 원칙이다.

낮다	나아, 나아가서, 나아도, 나아가야, 나아다
젓다	저어, 저어서, 저어도, 저어야, 저었다

붙임 1 ▶▶ 어간 끝모음 ‘ㅐ, ㅑ’ 뒤에 ‘-어, -었’이 붙을 때 ‘어’가 줄어들기도 한다.

매어 → 매	매어라 → 매라	매었다 → 뒀다	매어 두다 → 매 두다
떼어 → 떼	떼어라 → 떼라	떼었다 → 뒀다	떼어 놓다 → 떼 놓다

다만, 어간 모음 ‘ㅏ’ 뒤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ㅐ’로 줄어드는 경우는, ‘어’가 줄어들지 않는 게 원칙이다.

빈틈없이 (짜이어 →)째어 있다.	우묵우묵 (파이어 →)패어 있다.
--------------------	--------------------

붙임 2 ▶▶ ‘하다’는 ‘여’ 불규칙 용언이므로, ‘하아’로 되지 않고 ‘하여’로 된다. 이 ‘하여’가 한 음절로 줄어든 형태는 ‘해’로 적는다.

하여 → 해	하여라 → 해라	하여서 → 해서	하였다 → 했다
--------	----------	----------	----------

마로마로 쑥!

1 다음 () 안의 낱말 중 알맞은 것을 찾아 ○표 하시오.

- ① 요즘 (뒀 / 뒀) 하며 지내니?
- ② 면도하다가 턱을 (베어 / 베) 피가 났다.
- ③ (발사돈 / 뒀사돈)이 갑자기 찾아와 놀랐다.
- ④ 설탕을 넣고 커피를 (저어 / 젓어) 마셨다.

2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을 준말로 바꾸어 써 보시오.

예) 솟자를 세었다. ➡ 솟자를 섰다.

- ① 어제저녁부터 굶었더니 배가 고프다. ➡ _____
- ② 아이는 한쪽 발만 땅에 디디고 서 있었다. ➡ _____
- ③ 그것은 거기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오게. ➡ _____
- ④ 이번 폭우로 땅에 웅덩이가 파이어 있다. ➡ _____

제35항 | 모음 ‘ㄴ, ㄷ’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 -었-’이 어울려 ‘ㅏ/ㅑ, ㅓ/ㅕ, ㅗ/ㅛ’으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꼬아	꽂	꼬았다	꿰다
보아	봐	보았다	봤다
쏘아	쏘	쏘았다	쐈다
두어	뒤	두었다	뒀다
쑤어	쑤	쑤었다	쐈다
주어	쥬	주었다	쥼다

붙임 1 ▶▶ ‘놓아’가 ‘ㅏ’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붙임 2 ▶▶ ‘ㄴ’ 뒤에 ‘-어, -었-’이 어울려 ‘ㅓ, ㅕ’으로 될 적에도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괴어	괘	괴었다	괘다
되어	돼	되었다	뒀다
뵈어	뵈	뵈었다	뵈다
쇠어	쇄	쇠었다	쐈다
쑤어	쑤	쑤었다	쐈다

해설

모음 ‘ㄴ, ㄷ’로 끝난 어간에 어미 ‘-아/-어’가 붙어서 ‘ㅏ/ㅑ’로 줄어지는 것은 ‘ㅏ/ㅑ’로 적는다.

어간 ‘ㄴ, ㄷ’+어미 ‘-아/-어’ → (ㅏ/ㅑ ⇒) ‘ㅏ/ㅑ’로 표기

오아 → 와	오아도 → 와도	오아서 → 와서	오았다 → 왔다
추어 → 쥬	추어서 → 쥬서	추어야 → 쥬야	추었다 → 쥼다

다만, 제18항 4에서 다루어진 ‘푸다’의 경우는 ‘푸어 → 꺾’처럼 어간 모음 ‘ㅑ’가 줄어들므로, ‘꺾’로 적지 않는다.

붙임 1 ▶▶ 예컨대 ‘놓다’의 어간 ‘놓-’에 어미 ‘-아’가 붙으면 ‘놓아’가 되는데, 이 ‘놓아’가 줄어들어서 ‘쥬’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놓다’ (규칙 동사)의 경우는

■ 용언의 활용형 중 예외적 경우 ‘놓다’

놓아 → (노아 →)놔	놓아라 → (노아라 →)놔라
--------------	-----------------

처럼, 어간 받침 ‘ㅎ’이 줄면서 두 음절이 하나로 줄어진다. 그리하여 ‘놓다’의 경우는 예외적인 형식을 인정한 것이다.

붙임 2 ▶▶ 어간 모음 ‘ㅛ’ 뒤에 ‘-어’가 붙어서 ‘ㅛ애’로 줄어지는 것은 ‘ㅛ애’로 적는다.

되다	일이 뜻대로 (되어→)돼 간다.
	만나게 (되어서→)돼서 기쁘다.
	일이 잘 (되어야→)돼야 한다.
	나도 가게 (되었다→)됐다.

와 같이 줄어지는 형식을 적용하면, 예컨대 ‘죄다, 죄다’ 따위도

죄다	나사를 (죄어→)죄 본다.
	나사를 (죄어야→)죄야 한다.
	나사를 (죄었다→)줬다.
죄다	별을 (죄어라→)죄라.
	별을 (죄어야→)죄야 한다.
	별을 (죄었다→)줬다.

처럼 줄어진다.

제36항 | ‘ㅣ’ 뒤에 ‘-어’가 와서 ‘ㅣ’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가지어	가져	가지었다	가졌다
견디어	견더	견디었다	견뎠다
다니어	다녀	다니었다	다녔다
막히어	막혀	막히었다	막혔다
버티어	버터	버티었다	버텼다
치이어	치여	치이었다	치였다

해설

접미사 ‘-이, -히, -기, -리, -으키, -이키’ 뒤에 ‘-어’가 붙은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녹이어 → 녹여	먹이어서 → 먹여서	숙이었다 → 숙였다
업히어 → 업혀	입히어서 → 입혀서	잡히었다 → 잡혔다
끓이어 → 끓겨	남기어야 → 남겨야	웁기었다 → 웁겼다
굴리어 → 굴려	날리어야 → 날려야	돌리었다 → 돌렸다
일으키어 → 일으켜	돌이키어 → 돌이켜	

제37항 | ‘ㅏ, ㅑ, ㅓ, ㅕ, ㅡ’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각각 ‘ㅐ, ㅒ, ㅖ, ㅗ, ㅛ’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싸이다	싸다	누이다	누다
펼이다	펼다	뜨이다	뜨다
보이다	봔다	쓰이다	쓰다

해설

어간 끝모음 ‘ㅏ, ㅑ, ㅓ, ㅕ, ㅡ’ 뒤에 ‘-이-’가 결합하여 ‘ㅐ, ㅒ, ㅖ, ㅗ, ㅛ’로 줄어지는 것은 ‘ㅐ, ㅒ, ㅖ, ㅗ, ㅛ’로 적는다.

까이다 (被解) → 깨다	켜이다 (被鋸) → 켜다	쏘이다 → 쏘다
꾸이다 (現夢) → 꺼다	트이다 → 툐다	

‘놓이다’가 ‘봔다’로 줄어지는 경우도 ‘봔다’로 적는다. 또 형용사화 접미사 ‘-스럽(다)’에 ‘-이-’가 결합한 ‘스러이’가 ‘-스레’로 줄어지는 경우도 준 대로 적는다.

새삼스러이 → 새삼스레	천연스러이 → 천연스레
--------------	--------------

제38항 | ‘ㅏ, ㅓ, ㅕ, ㅡ’ 뒤에 ‘-이어’가 어울려 줄어질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싸이어	싸어 싸여	뜨이어	뜨어
보이어	봔어 보여	쓰이어	쓰어 쓰여
쏘이어	쏘어 쏘여	트이어	툐어 트여
누이어	누어 누여		

해설

어간 끝모음 ‘ㅏ, ㅓ, ㅕ, ㅡ’ 뒤에 ‘-이어’가 결합하여 줄어질 때는 두 가지 형식으로 나타난다. 곧, ‘이’가 앞(어간) 음절에 올라붙으면서 줄어지기도 하고, 뒤(어미) 음절에 내리이어지면서 줄어지기도 한다.

까이어 → 깨어/까여	꼬이어 → 꺼어/꼬여
누이어 → 누어/누여	뜨이어 → 띄어/(눈이) 뜨여
쏘이어 → 쏘어/쏘여	트이어 → 툐어/트여

‘놓이다’의 준말 ‘봔다’의 경우는 ‘봔어’로 적지만, ‘놓이어’가 줄어진 형태는 ‘놓여’로 적는다.

다만, ‘띄어쓰기, 띄어 쓰다, 띄어 놓다’ 따위는 관용상 ‘띄여쓰기, 띄여 쓰다, 띄여 놓다’ 같은 형태가 사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띄이우다)띄우다, (쓰이우다)쓰우다, (트이우다)트우다’ 처럼 ‘-이’ 뒤에 다시 ‘-우’가 붙는 형식에서는, ‘이’를 앞 음절에 올려붙여 적는다.

다름마로 쑥!

■ 다음 문장에서 잘못된 표기를 골라 바르게 고치시오.

- ① 벌레에 씌여 가렵다. ➡ _____
- ② 공부에 흥미를 갖으니까 즐겁다. ➡ _____
- ③ 그가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었다. ➡ _____
- ④ 우리말의 띄어 쓰기 규칙은 어렵다. ➡ _____

제39항 | 어미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과 ‘-하지’ 뒤에 ‘않-’이 어울려 ‘-찮-’이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그렇지 않은	그렇잖은	만만하지 않다	만만찮다
적지 않은	적잖은	변변하지 않다	변변찮다

해설

제36항 규정을 적용하면, ‘-지 않-’, ‘-치 않-’이 줄어들면 ‘잖, 찡’이 된다. 그러나 줄어진 형태가 하나의 단어처럼 다루어지는 경우에는, 구태여 그 원형과 결부시켜 준 과정의 형태를 밝힐 필요가 없다는 견해에서, 소리 나는 대로 ‘잖, 찡’으로 적기로 한 것이다.

실상 사전에서 준말로 다루어지고 있는

(깔밋하지 않다→)깔밋잖다	(깨끗하지 않다→)깨끗잖다
(남부럽지 않다→)남부럽잖다	(의젓하지 않다→)의젓잖다
(대단하지 않다→)대단찮다	(만만하지 않다→)만만찮다
(시원하지 않다→)시원찮다	

따위와, 준말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렇지 않다 → 그렇잖다	적지 않다 → 적잖다
무심하지 않다 → 무심찮다	편안하지 않다 → 편안찮다

따위와의 구별은 임의적인 해석에 의하여 좌우되기 쉬운 것이며, 또 표기에 있어서 혼란을 일으킬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번 개정에서는 ‘-지 않-’, ‘-치 않-’이 한 개 음절로 줄어지는

경우는 모두 '잖, 찹'으로 적도록 하였다.

두렵지 않다 → 두렵잖다	많지 않다 → 많잖다
예사롭지 않다 → 예사롭잖다	의롭지 않다 → 의롭잖다
성실하지 않다 → 성실찮다	심심하지 않다 → 심심찮다
평범하지 않다 → 평범찮다	허술하지 않다 → 허술찮다

‘귀찮-, 점잖-’처럼 어간 끝소리가 ‘ㅎ’인 경우는, [찬]으로 소리 나더라도 ‘귀찮지 않다 → 귀찮잖다, 점잖지 않다 → 점잖잖다’로 적는다.

제40항 |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간편하게	간편케	다정하다	다정타
연구하도록	연구토록	정결하다	정결타
가하다	가타	흔하다	흔타

붙임 1 ▶▶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진 것은 받침으로 적는다.

않다	않고	않지	않든지
그렇다	그렇고	그렇지	그렇든지
아무렇다	아무렇고	아무렇지	아무렇든지
어떻다	어떻고	어떻지	어떻든지
이렇다	이렇고	이렇지	이렇든지
저렇다	저렇고	저렇지	저렇든지

붙임 2 ▶▶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거북하지	거북지	생각하건대	생각건대
생각하다 못해	생각다 못해	깨끗하지 않다	깨끗지 않다
넉넉하지 않다	넉넉지 않다	못하지 않다	못지않다
섭섭하지 않다	섭섭지 않다	익숙하지 않다	익숙지 않다

붙임 3 ▶▶ 다음과 같은 부사는 소리대로 적는다.

결단코	결코	기필코	무심코	아무튼	요컨대
정녕코	필연코	하마터면	하여튼	한사코	

해설

제15항에서는 실질 형태소인 어간과 형식 형태소인 어미를 구별하여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통일안(제56항)에서와 같이 ‘흔하다’가 준 형태는 ‘흔하다’ 또는 ‘흙다’로 적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준 소리 ‘ㅎ’을 사이 글자로 적는 데는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한글 맞춤법의 체계에 있어서 예외적인 형식이 된다. 곧, 한글 맞춤법의 체계는 말소리를 음절 단위로 적는 것인데, 다만 이 준 소리 ‘ㅎ’만은 한 개 자음이 독립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필기의 형식이나 인쇄물의 체재에서 시각적으로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게 된다.

둘째는, 대중이 사이 글자 ‘ㅎ’의 용법을 익히는 데 어려움이 있다. 맞춤법은 교양인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의 성격을 띠는 게 통례이긴 하지만,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대중을 위한 규정을 지향(指向)하는 것이므로, 대중이 이해하고, 대중이 준용(準用)할 수 있는 규정이 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

“어간 끝음절 ‘하-’의 ‘ㄱ’이 줄고 ‘ㅎ’이 남는 경우”를 이해하고 사이 글자 ‘ㅎ’을 쓰는 일은, 아무래도 대중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규정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까닭으로 통일안 제56항(Ⅱ 권 65쪽 준 소리 ‘ㅎ’ 관계)은 교과서 표기에서나 제대로 지켜졌을 뿐, 유아무야(有耶無耶)한 규정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번 개정에서는 이 경우도 예외로 다루어, 소리 나는 대로 적기로 한 것이다.

가(可)하다 부(否)하다 → 가타 부타 (→ 가타부타)		
무능하다 → 무능타	부지런하다 → 부지런타	아니하다 → 아니타
감탄하게 → 감탄케	달성하게 → 달성케	실망하게 → 실망케
당(當)하지 → 당치	무심하지 → 무심치	허송하지 → 허송치
분발하도록 → 분발토록	실천하도록 → 실천토록	추진하도록 → 추진토록
결근하고자 → 결근코자	분발하도록 → 분발토록	실천하도록 → 실천토록
추진하도록 → 추진토록	결근하고자 → 결근코자	달성하고자 → 달성코자
사임하고자 → 사임코자	청하건대 → 청컨대	회상하건대 → 회상컨대

붙임 1 ▶▶ 준말에 있어서,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져 있는 것은 받침으로 붙여 적는다. 이 경우, 한 개 단어로 다루어지는 준말의 기준은 관용에 따르는데, 대체로 지시 형용사(指示形容詞)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어떠하다, 아무러하다’ 및 ‘아니하다’ 등이 줄어진 형태가 이에 해당된다.

이러하다	이렇다, 이렇게, 이렇고, 이렇지, 이렇거나, ……
아니하다	않다, 않게, 않고, 않지, 않든지, 않도록, ……

붙임 2 ▶▶ 어간의 끝음절 ‘하’가 줄어진 형태로 관용되고 있는 형식을 말하는데, 안울림소리 받침 뒤에서 나타난다.

갑갑하지 않다 → 갑갑지 않다 → 갑갑잡다	깨끗하지 않다 → 깨끗지 않다 → 깨끗잡다
넉넉하지 않다 → 넉넉지 않다 → 넉넉잡다	답답하지 않다 → 답답지 않다 → 답답잡다
못하지 않다 → 못지않다 (→ 못잡다)	생각하다 못하여 → 생각다못해
생각하건대 → 생각건대	익숙하지 못하다 → 익숙지 못하다

